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94년도 각 부서별 조직 완료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11월 3일 '94년도 각 부서조직을 완료하였다.
10월 정기당회에서 임명받은 위원장들의 제청에 따라 당회가 인준한 봉사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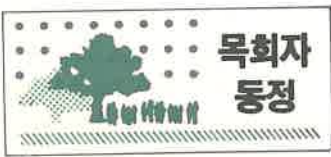
위원회	지 도	위원장	서 기	회 계	위 원
기 획	임진태	유운진	이웅선		임광식, 이영세, 전인화, 김영주, 임상현
예 배		최종시	서문석	노송성	예배 : 오광환, 이계홍, 최광석, 김정희, 김상옥, 성례 : 전인화
찬 양		나희주	김중수	이구연	찬양대장, 박정선
교 육		김광신	이제원	원웅철	각부장, 지도교역자
교 구		권상석	노문환		각교구장
선 교		김재호	오정수	이재권	국내전도 : 박두호, 군선교 : 이번생, 해외선교 : 김세재
구 제		최병호	정병무	박동춘	김태기, 김성준, 김광욱
재 정		임광식	오정수	박철훈	이남호, 성준경, 이옥녀, 백영희
건 축		박철훈	이복규	김 훈	이남호, 이영렬, 하영수, 김상철, 임상현, 오치열, 김진환, 정동호

•교회학교

부 서 명	지 도	부 장	부 감	
			남	녀
탁 아 부	유순화	김선미		최재춘
유 치 부	김혜순	이제원	이관규	현병애
유 년 부	김재호	원웅철	서춘식	현정옥
초 등 부	최병호	박철훈	서문석	최윤정
중 등 부	권상석	정병무	허찬우	이영옥
고 등 부	원필현	노문환	하영수	김윤자
대 학 부	김영한	김광신	안의경	최원자
청 년 부	장용휘	오정수	김상철	김연옥
새 가 족 부	임진태	이영세	박두호	이신일
소 망 부	우심화	홍정호	김영준	김증복
사 랑 부	유수영	윤봉준	이복규	전인화

•교구

교구명	담당교역자	교구장
1교구	임진태	최종시
2교구	임진태	오정수
3교구	권상석	정병무
4교구	권상석	박철훈
5교구	최병호	홍정호
6교구	최병호	이영세
7교구	김재호	김대호
8교구	김재호	유운진
9교구	장용휘	윤봉준
10교구	장용휘	노문환
11교구	원필현	김광신
12교구	원필현	나희주
(1-6교구)	유순화	
(7-12교구)	김주아	



서울 강남노회 제13회 정기노회
가 오는 11월 8일(월) 서울믿음
교회(서초구 방배동)에서 열린
다. 이날 오후 2시 우리교회 최병
호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게된다.

•찬양대

부 서 명	지 도	대 장	부대장
가 브 리 엘	임진태	김광신	김재중
할 렐 루 야	"	김대호	성준경
임 마 누 엘	"	이남호	이태상
베 들 레 험	"	이영렬	윤찬오
호 산 나	"	백영희	유복달
시 은	"	나희주	김중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오직 “아멘” 뿐이다.

창세기강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이종운 목사

첫번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행하신 가장 큰일 중의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깨치신 일입니다. 그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와같은 일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 사탄과 여인과의 대결

창 3:15는 사탄과 여인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영적인 것으로만 보아도 아니되고 뿔난 어떤 모습으로만 보아서도 안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존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숭배하려고 했던 사탄의 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다고 물러서지를 않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잠입을 해서 인간 스스로가 사탄에게 예배를 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자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방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노력과 작업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취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여자와 사탄의 대결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여인을 미워한 것은 새

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인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근본적인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그 후손이 사탄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2.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대결

사탄과 여인의 대결은 개인적인 싸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후일에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대결로 연결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16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대결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대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작은 악마를 키우는 법도 없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타락전에 일회적으로 피조된 것 뿐이고 그 수가 증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과 대결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없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1~5 말씀에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붉은 용이 그리스도의 일을 막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으나 여인은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길만이 사탄이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멸망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려고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치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육체적인 마음도 갖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사탄의 모든 꾀계를 철저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38에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나 구약성경을 읽으면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까지 부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힘까지 가진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무섭게 쳐들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겨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탄과 대결을 하여 이길 길이 없습니다.

3. 십자가상의 승리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 10:18)

예수님은 사탄에게 목숨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살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지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

기가 이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15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의 승리는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14에 의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여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했고, 자기 영광을 찾은 자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첫째 아담의 것에 연결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이종운목사 방송설교 ■

가도광방송(HLKY 837KHz)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6시(성경교실)

극동방송(HLKK 1188KHz)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나의 갈길 다가도록)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매주 일요일 오전 8시~30분(주일설교),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50분(재방송)

함께 생각만사

인간복제의 시도를 경고한다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해괴한 장난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복제하기에 이르렀다.

신비스러운 생명의 근원을 피조물인 인간이 밝혀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일이거나 생명개체마다 누구도 용해해서는 안될뿐더러 할 수도 없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간복제의 시도는 그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전 인류에 대한 반란이며 창조질서에 정면도전하는 우매한 행위이다.

더구나 인간복제의 목적중의 하나가 먼저난 인간에게 부작용 없는 장기공급에 있다니 이것은 인간을 기계 부품화하려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기증스러운 도전이다. 세계 지배의 야욕이라 히틀러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복제인간의 망상이 다시 시도되었다는 소식은 그 옛날 교만한 인간들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땠는가를 잘 아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뿐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인간복제라는 엄청난 질서파괴는 어떤 논리나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가공스런 불장난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주관할 수 없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창조섭리에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증스러운 시도를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믿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한다.

이 영혼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교회 '93 비전 2000운동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전도의 불을 태우고 있다. 순례자는 전 교인의 공동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태신자의 명단과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기도를 요청한 이들의 이름을 접수된 순서대로 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각 교구별 다락방에서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심방을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인도자와 태신자들 이름들이다.

1교구 : 박순봉(강순규, 최남예, 권은숙, 권덕수, 최금자, 이우철, 변호정, 김필홍), 방계운(성춘모, 정희자, 조영식), 차복녀(김재중, 정수경, 김생기), 최영순(김옥희, 조경화), 이용선(김필송, 변호정), 이완형(최인원, 이순예), 장애희(안병록, 이은숙, 안광선, 안광림, 안광복)

2교구 : 김경아(정보화, 백양숙, 정제화, 정승필, 정유경, 김보미, 김서경, 김재영, 박지원, 안평, 신용우, 이희찬, 이혁준, 김갑수), 노인덕(박윤수, 홍순애, 박유상, 천금옥), 명연호(김용팔, 편연자)

3교구 : 김현영(정광모), 황정임(홍승무), 서희숙(김진채, 윤혜연, 황연옥), 심재울(심재수, 허규택), 박은미(강영수, 강영란, 권도화, 강주희, 박영근), 최순애(김은숙, 이두연, 이정각, 이하나, 최옥태), 마상수(김호찬, 이영갑, 오경자), 김인순(정효성, 주명자, 김소망, 정용옥, 장동현)

4교구 : 박순옥(김진수, 최예순, 고광선, 이영남), 황낙효, 박은조(김도환, 박윤숙, 박태균, 강영옥), 서창원(서상원, 김병희, 남도근, 홍원기, 이철수, 홍복순), 이기숙(이완옥, 송정희, 서봉석, 이춘자, 김기천), 김용구(이철우, 이현숙, 홍옥순, 김경향), 김금준(정우정, 심우인, 이대건, 심성섭, 이갑섭)

5교구 : 이승자(김병덕, 장창록, 김봉식, 이순화, 김유정, 김웅수, 김웅조), 최명순(배순옥, 박재수, 신성수, 조상용), 김중수(김길호, 이화정), 허인숙(박정식, 박용민, 이길호, 용민호, 황길호, 한기희, 한순영, 한나영, 박정식, 이길호, 박용민, 용민호), 허규칠(장재현, 배정화, 박승혁), 권영선(정해자), 이영숙(전일석, 이용애), 이민화(우정자, 마정숙, 정순조, 조동운, 정임득)

피택자로 7인과의 만남(VI)

홍정호 장로



협력하여 선을

“타교회에서 시무장로 직분을 맡았었지만 서울교회에 온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장로로 피택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고보니 감사할 뿐이며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해 9월 서울교회에 등록하신 홍정호 장로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서울교회를 오시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간단히 말씀을 따라 왔을 뿐이라고 하시는 홍장로님은 부인 우선자 권사님과 함께 고등부에서 각각 교사와 부감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89년 말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오랜 방황 끝에 서울교회에 오셨다는 홍장로님은 교회를 잘 선택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시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전도를 하고는 새신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데 우리교회에 와보니 새가족부라는 교육부서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도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서 새신자를 잘 양육하여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까지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세미나와 김치세미나등 교회갱신과 선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장로님들도 그 인격과 신앙이 본받을만하고 이제는 제가 그분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홍장로님은 부인 우선자 권사님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계시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장로님을 하였고 또 두 아들이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니 4대째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계신 셈이다. 그런가 하면 우선자 권사님 가정도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가 장로를 하셨으니 홍장로님댁은 명실상부한 기독교 가정이다.

우선자 권사님은 얼마전에 순례자에 신앙간증을 기고하여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은 아마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역시 오랫동안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79년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가정이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교회에서 남편이 장로로 피택을 받았으니 장로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낭랑한 음성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선자 권사님. 이러한 기도의 후원이 있는한 우리교회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

6교구 : 최경애(박영식, 전요임, 박대현, 김의설, 진승옥), 장미산(김대운, 김동준, 장미선, 이옥희 언니와 친정 어머니, 은재영), 최경애(최금수, 임희선, 박순국, 이계향, 김미자, 김정수), 김병용(나순심)

7교구 : 이신일(이경호, 이경희, 이선진, 박정선, 박종순), 박종민(임경석, 강선미, 임자영, 임경태)

8교구 : 전준자(지인홍, 나영애, 노병향, 노미선, 노미애, 노경환, 지복실, 지광칠), 박춘봉(박승진, 이옥남)

9교구 : 김의순(서영아), 윤봉준(윤봉환, 원상연, 김영철, 원상현, 김종철, 이상태), 송옥혜(장형숙), 신기숙(신준식, 구영순, 김성순, 신영자, 신화식)

10교구 : 여현진(이연심, 조영남, 전순자, 황진순, 이정애, 임은숙, 김영희), 홍성주(우종용, 유승엽, 채황, 이희원, 서신석, 여종태), 한명순(박운봉, 오병태, 정판문, 장순희, 임영선, 임도형)

11교구 : 김정희(김근희, 안원애, 심영섭, 유효숙, 이희숙), 박용균(박명배, 박중화, 박진혜, 박명자, 박규은)

12교구 : 김규희(안정순, 김소희와 부친), 정혜진(김을호, 윤양숙, 최혜정, 김경숙, 최일곤), 김현주(김임조, 김필순, 김희현, 김희영, 김용균, 이점숙, 이점자, 김희태, 탁신희, 김석균, 김대용, 윤순옥, 김태혁, 김태수, 김태진)

순례자칼럼

비전 2000을 향한 도전

유 순 화 전도사

성도들을 심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60년대 사람들은 집을 지을때 밖에서 보면 단조로운 기와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였는데 70년대는 반양옥으로, 80년대는 2층 양옥으로 큰집을 지었고 90년대는 그것도 불편하여서 10년전에 지은 집을 허물어 버리고 다세대로 4, 5층을 짓고 아파트는 20층 혹은 25층으로 높게 짓는다.

이런 높은 건물을 볼때마다 삭막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줄을 지어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소음은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고 잡다한 모든 문물들은 많은 사람에게 신경쇠약을 일으키게할 정도이다. 더욱이 요즘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하고 별을 보고 들어오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도 보기도 어려운 시대이다.

60년대에는 서로들의 생활이 드러나 보이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물질문명속의 퇴폐문화와 New Age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은 옆으로만 뛰어서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5층 다세대와 25층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전도하려면 전보다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직장, 자녀, 건강, 취미 다양해진 생활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없는 저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던히도 참는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유다를 향하여도 온유함으로 대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성찬을 베푸시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피흘릴것을 증거하셨다.

그뿐인가 열 두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고 대제사장의 거짓증언에도 침묵하셨으며 다만 오실 인자의 권능을 증거하셨다.

사도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은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알았기에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호소하지 않았던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인자의 권능을 전하되 옆으로 뛰고, 위를 향하여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바자회가 열린다.

-12일(금), 13일(토) 이틀간-

「모임과 나눔의 장」안내

청년부(부장 오정수 장로)에서는 성도와 이웃간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재활용품들과 다른 품목들을 놓고 오는 12월(금) 오전 11시부터 13일(토) 오후 5시까지 사랑의 바자회를 갖는다.

나누는 것 : ●재활용품들(각종 의류, 책, 장식용품, 악세서리, 주방용품, 학용품등) ●건어물(미역, 김, 멸치, 오징어) ●반찬류(젓갈, 고추장) ●침구류 ●권사회에서 준비한 호박죽과 쇠고기 국밥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음료수

목회자 세미나 봉사자들 모임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4차 목회자 세미나가 종반에 이르면서 그동안 헌신적 봉사를 해오신 120여명의 봉사자들의 모임이 오는 11월 11일(목)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다.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70여명의 한나, 에스더 회원들을 중심으로 여성도들의 중식준비와 현장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손길은 아름답지만 했다. 누구의 명령이나 조직을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서울교회 성도들의 높은 신앙수준을 반영하듯 질서와 조화있는 봉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 세미나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제1회 수료식(11월 15일)을 앞두고 4학기동안 개근한 목사님들도 장하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봉사의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받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베드민턴 대회장에도 복음을

생활체육 서울특별시 배드민턴 13일(토)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연합회(회장 송석인)는 생활체육 13일(토)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연합회(회장 송석인)는 생활체육 연합회를 위하여 15개 시·도 교회 전도위원회는 전도활동을 초청 베드민턴 대회를 오는 11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14:00-15:30(90분)	일시	제 2 교 시 15:50-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이 중 윤 목사 ● 서울장로교회	8일	변연(J. Bunyan)의 견경과 비전 장 중 철 교수 (강선대)
	15일	하나님의 목회와 나의 설교 임 택 진 목사 (청량리중앙교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3. 비전 2000운동이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